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8.50원 급락한 1,306.80원에 마감

8일 환율은 전일대비 18.50원 급락한 1,306.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9.30원 하락한 1,316.00원에 개장했다. BOJ의 정책 전환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가 촉발한 달러 약세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차익실현 물량 등이 유입되었으나 오전 장 후반부터 거래량은 감소했다. 오후 거래에서도 환율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1,306.8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11.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6.2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16.00	1316.50	1304.60	1306.80	1307.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22.11	922.13	899.88	901.27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30.71	1431.19	1401.37	1406.5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53	-6.23	-13.11	-25.73
결제환율(수입)	-1.21	-5.21	-11.42	-22.7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비농업 고용지표 호조에...1,31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06.80) 대비 10.95원 상승한 1,315.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도 비농업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달러 강세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11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9.9만명 증가하며 예상(18.5만명)을 상회했고 실업률은 3.9%에서 3.7%로 하락했다. 또한 임금상승률은 전월대비 0.4% 증가(예상 +0.3%)하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에서 62.8%로 상승하며 양적 및 질적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에 미국 2년 국채금리는 약 13bp 급등하였으며 달러화 지수 또한 104p를 회복했다.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

대가 축소되면서, 이 같은 금리 인하 기대치 축소는 금일 역외 매수 심리를 자극하여 달러-원에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역내 추격 매수세도 금일 환율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3.00 ~ 1322.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012.8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95원 ↑
	■ 美 다우지수 : 36247.87, +130.49p(+0.3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3.0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52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